

# 한국 가계부채 발생 신용 위기 오나

## 위험도 2002년 카드대란 수준 근접 증가세 작년 수준이면 하반기에 폭발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위험도가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작년 수준으로 지속되면 올해 하반기 중 임계치에 도달, 가계부채 발생 신용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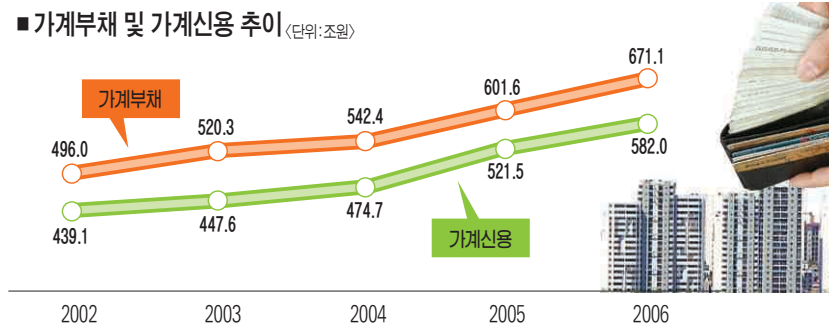
삼성경제연구소는 18일 '가계부채의 위험도 진단'이라는 보고서에서 "가계신용의 위험수준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가계신용위험지수를 개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가계신용 위험도는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만일 가계부채 증가가 작년의 증가 속도로 2분기 정도 지속될 경우 가계신용 위험도는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와 같은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면서 "물론 지금의 경제·금융 환경이 신용카드 버블 붕괴 때와는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반드시 버블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가계부채 발생 신용위기에 대한 적색경보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다행히 올해 들어서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가 둔화하고 있는데,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 계속된다면 가계신용 위험도는 점진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가계부채의 절대규모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가계대출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택가격 하락 등 충격요인이 작용할 경우 가계신용 위험도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실제로 가계대출 금리가 1.3%포인트 상승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구입된 주택가격이 5.5% 이상 하



락하는 경우 가계신용 위험도는 2002년 신용카드 버블 붕괴 당시와 같은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6년간 2배 이상 확대됐으며 가계부채 증가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스웨덴,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연구소는 "이같은 증가속도는 과거 가계부채 발생 신용위기를 겪을 당시 스웨덴, 노르웨이나 최근 주택담보대출 부실화가 진행되고 있는 미국과 영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유사하다"면서 "게다가

우리나라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가계의 재무안정성도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가계대출 부실화로 인한 신용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향후 금리정책 운용의 초점을 부동산시장 안정보다 가계부실화 가능성에 둘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인축 감도가 높아져 가계대출금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부채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18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무료 FP(재무설계) 상담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CFP 등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개인별 맞춤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맞춤 재무설계

18일 광주은행 본점에서 열린 '무료 FP(재무설계) 상담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CFP 등 전문 재무설계사로부터 개인별 맞춤 재무설계 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일보사와 한국FP(재무설계)협회가 주최한 '무료 FP 강연 및 상담회'가 18일 광주은행 본점 3층 강당에서 300여명의 지역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강사로 나선 재무상담법인 IFPK(주) 최문희 정장은 "저금리시대와 고령화사회를 맞아 인생 전반에 걸친 재무설계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가족의 라이프사이클을 바탕으로 생애 재무목표를 설정한 후 재무상황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자신에 맞는 재무설계안을 마련했다면 꾸준한 실천과 정기 점검이 재무설계 성공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상담회에선 CFP와 AFPK 등 재무설계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50여명의 상담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재무설계를 무료로 제공한 호응을 얻었다.

상담 신청자들의 80%가량은 여성이었고 연령대별로는 30, 40대가 가장 많았다. 또 예금 등 여윳돈의 펀드투자 등 증권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부동산과 노후자금 마련에 대한 상담 신청도 많았다.

상담을 받은 노모(여·40)씨는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몰라 답답했는데 전문가의 재무진단을 받아보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국제선 항공료 또 인상 내달에도 최대 9달러

국제선 항공요금이 4월에 이어 5월에도 소폭 오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용 현물 시장가가 월간당 1.86달러 수준으로 전월의 1.74달러보다 높아짐에 따라 5월 1일 발권분부터 유틸리티료가 노선별로 최대 9달러까지 인상된다.

유틸리티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기 운항 비용 증가분을 요금 인상으로 반영하는 제도도 월간당 1.80달러가 넘으면 최고 단계인 7단계가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 7단계로 최고를 기록한 뒤 2월 6단계, 3월 5단계, 4월 6단계로 보험세를 보였지만 최근 유가가 오르는 바람에 5월부터 다시 7단계에 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들은 내달부터 국제선 항공료를 일제히 올릴 방침이다.

장거리인 인천-미주, 인천-대양주, 인천-유럽은 유틸리티료가 기존 43달러에서 52달러로 9달러가 오르면 단거리인 인천-동남아, 인천-동북아, 인천-사관, 인천-독립국가연합은 22달러에서 25달러로 3달러가 오른다. /연합뉴스

## 65세이상 운전자 사고율 최근 10년 3.8배나 늘어

교통사고중 65세 이상 고령층 운전자의 사고비율이 최근 10년간 3.8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이의용 과장은 18일 손해보험협회의 월간 '손해보험' 4월호에 기고한 '고령층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특성과 안전대책'이라는 기고문에서 1996~2005년 사이 교통사고 실태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과장에 따르면 고령층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은 1996년 전체의 0.9%에서 2005년 3.0%로, 이들의 사고건수 역시 1천511건에서 6천 111건으로 각각 3배 가량 증가했다.

또 전체 사고중 고령층 운전자의 사고비율은 같은 기간 0.6%에서 2.9%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1995년 이후 전체사고의 치사율이 평균 3.6%인데 비해 고령층 운전자 사고의 치사율은 7.2%로 2배에 달하는 등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일반 운전자에 비해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발생한 고령층 운전자 사고는 요일별로 월요일과 금요일이 각각 15.3%로 가장 많았고, 시간대별로는 오후 2~4시 사이에 14.1%가 몰렸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6.2%로 가장 많았고, 경기 15.0%, 경북 11.7%, 전남 7.8%, 전북 6.6%의 순이었다. /연합뉴스

# 성장 둔화, 서비스업 저성장 탓

##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은 성장세로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성장이 증가세로 반전됐지만 경제성장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서비스업의 저성장에 원인이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법률, 회계, 금융 등 다른 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자서비스의 증가세 둔화가 큰 영향을 미쳤고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규제개혁과 경쟁 원리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8일 '되살아나는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는 보고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원인과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1990년대 국내총생산

(GDP) 증가율 하락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 원인이 있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 성장률이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환위기 이후의 성장 둔화는 서비스업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업 부가가치의 44.5%를 차지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의 연평균 부가가치 증가율은 1993~98년 6.7%였지만 1998~2006년에는 5.3%로 떨어졌다.

하지만 도소매·창고·운송 등 유통서비스는 3.1%에서 4.9%로, 음식·숙박·문화·오락 등 소비자서비스는 4.1%에서 5.0%로 올라갔고 교육·의

료·복지 등 사회서비스는 2.7%로 두 기간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도 1993~98년과 1998~2006년 모두 4.5%로 같았다.

김 위원은 이에 따라 "생산자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부가가치 증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1990년대 들어 하락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증가 추세가 전향됐고 고용도 외환위기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인당 부가가치 격차도 확대되지 않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성장의 유턴(U-Turn)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정몽구회장 해외경영 재개

현대·기아차 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두달만에 해외 경영을 재개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오는 24일 기아차 슬로바키아 공장 준공식과 25일 현대차 체코공장 착공식에 차례로 참석하러 내달 14일부터는 브라질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 회장의 해외 출장은 지난 2월 인도를 다녀온 뒤 올해로 두번째이다.

정 회장은 특히 슬로바키아 공장에서는 기아차가 유럽시장 공략모델로 내놓은 '씨드'의 유럽판 판매 현황을 점검하고 판매 확대 등 소비자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을 짤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유럽 순방에는 정 의선 기아차 사장, 최재국 사장, 한규환 현대모비스 부회장 등 그룹 경영진과 협력사 대표 등이 대거 동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정부, 52개국과 FTA 협상 추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FTA의 전략적인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김한수 FTA추진단장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품 분야는 끝나고 서비스, 투자 분야가 남은 아세안 회원국 및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14개국과 협상을 진행중이고 조만간 협상에 착수하거나 여건을 조성중인 국가는 38개국"이라고 밝혔다.

특히 EU와의 FTA는 내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칠 예정이어서 EU측의 대내 절차만 원활하게 진행되면 내달 7일 서울에서 1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 와 관련, 정부는 각 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협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연찬회를 오는 20일 열 계획이다.

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아랍에미리트연합, 바레인 등 6개국 이 가입한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와는 연내 협상 출범을 위한 사전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이 속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와는 이미 지난해 정부간 공동연구를 끝내고 협상 출범 여부를 검토중이며 중국과는 지난 3월 산.학 공동연구 1차회의를 열었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는 올해 진행될 민간공동연구 결과 등을 부위 협상 추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통상교섭본부는 FTA 조식을 기존 1국 4개과에서 2국 7개과로 확대한 'FTA추진단'을 최근 설치했다. /연합뉴스

## 한미 FTA 타결 이후 구직자 70% 영어 부담

구직자 10명 중 7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이후 취업준비에 영어의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사취업전문기업 인크루트(www.incruit.com)에 따르면 구직자 1천653명을 대상으로 '한미FTA 타결 후 영어부담감'을 설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9.9%가 '한미FTA 타결 이후에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더 커졌다'고 답했다.

'영어에 대한 부담감이 더 줄어들었다'고 답한 구직자는 전체의 1.1%에 불과했으며 '한미FTA 타결 이전이나 타결 이후나 별 차이 없다'는 29%였다. 영어 부담감이 커졌다는 응답자들은 특히 회화능력(74%)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고 답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인영어점수'(22.1%) 등의 부담감을 들었다. /연합뉴스

## 병의원 광고문구 '남성' '여성' '전문' 등 사용할 수 없다

앞으로 병의원의 전문과목 앞에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용어가 금지되고 광고문구에 '수술전문' 등과 같은 '전문'이라는 용어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현원일)는 17일 첫 회의를 열고 89건의 의료광고를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고심의위원회는 "남성비뇨기과 전문의 X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는 "XX 지역 최초의 여성외과전문"과 같은 성별 표현은 전문의 제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남성수술 전문'에서처럼 '전문'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덩어리' 지방조직을 주입한 귀두확대수술 광고에서 "수술 후 (지방조직) 흡수되지 않는다"는 광고 문구의 경우 덩어리 지방조직도 흡수가 된다는 의학적 사실과 다르므로 '과대광고'로 규정했다. 그동안 논란이 된 '기사 형식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임을 명시할 경우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신식', '명가(名家)', '4월의 이벤트'와 같은 표현도 금지 사항으로 규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의료법이 광고 가능 항목을 열거하던 형태에서 금지항목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특정형태의 광고 금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내에 설치된 기구이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Recruiting Gwangju Network  
062.JOBKOREA.CO.KR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원시스템	인프라구축(NW,보안,병행력,시스템,DBA) 사원	초대졸/경력1년	회사내규	04/20	062-384-1161
코다웨이	일반사무원 및 경력자 웹디자이너 채용공고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0	062-603-4188
광주제2순환도로	도로 안전/순찰/유지보수 및 통행료징수 사원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4/21	062-370-0500
㈜금소방	총무/경리/회계 직원 채용	초대졸/경력1년	1200~1400	04/23	062-261-0941
진화엔지니어링	경리 및 전반적인 사무실 업무 사원	고졸/경력1년	1200~1400	04/23	062-261-0941
회인현천	(총무/경리/회계)정규직 여사원	고졸/경력무관	1200~1400	04/23	061-383-0345
☞재능교육광주	2007년 재능선생님 공개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4	062-973-1132
인포드림넷	헤니로텔레콤 인바운드 기술상담사원(남/녀)	고졸/경력무관	1800~2000	04/25	062-236-0217
삼성화재해상보험광주지점	삼성화재 IT강사 모집	초대졸/경력1년	1600~1800	04/25	062-220-8282
호남대학교	호남대학교 직원채용	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6	062-940-5851
IAE 유학네트 광주지사	[유학 상담 및 회원 관리] 정규사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27	062-233-8171
천지리이프	[정규직] 보험영업사원 모집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04/30	062-433-4077
도국증권광주점	호텔 프론트/사무관리/관광안내/통역사 채용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4/30	061-375-0025
현진eng	기계설계 및 경리직 사원모집	고졸/경력3년	회사내규	05/15	062-955-5079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